

# 지난달 평년 比 춥고 기온변화 컸다

지난 1월은 예년 1월보다 추고 기온변화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상청이 발표한 1월 기상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2도로 평년(-1.6~-0.4도)보다 낮았다. 특히 1월 한 달간 기온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했다. 지난달 10~13일 비이강호 부근에 형성된 상층 고기압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23일 이후에는 우랄산맥-카라해 부근과 베링해 부근에 상층 고기압이 형성돼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강한 추위가 지속됐다. 특히 지난달 24일과 26일에는 전

## 기상청, '1월 기상 특성' 발표 24일~26일 평균기온 -10.4도

국 평균기온이 -10.4도로 옮겨올 들어 추운 날씨를 보였다. 이는 평년(1981~2010년)보다 9도나 낮은 기온이다. 24일에는 태백 -12.9도, 파주 -12.1도, 속초 -8.4도 등을 보이며 기온이 가장 낮은 1월로 기록됐다. 지난달 15~22일에는 평년 대비 4도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였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공기가 유입됐기 때

문이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21.1mm로 평년(18.4mm~28.7mm)과 비슷했다.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으나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내려 평년 수준의 강수량을 보였다.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통과하거나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서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렸다.

지난달 10~11일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과 찬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른 대기 온도와 해수 온도 차이에 의해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렸다. 지난달 10일 광주에서는 17.1cm의 눈이 내려 일 최심적설(새로 와서 쌓인 눈의 두께) 최대 극값을 경신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우리나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서울·경기·강원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다.

뉴스스

## 중국 철강회사서 가스누출 사고...9명 사망

중국 대형 철강회사인 서우강그룹 구이저우성 공장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류퉁수이시 당국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서우강 수이강(水鋼) 그룹의 한 공장에서 6만KW급 전기로 점검 및 수리 과정에서 11명이 유출된 가스에 질식사했고, 이중 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당국과 그룹 관계자는 현장에서 인원 구조 및 사고 수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파키스탄·아프간 지진으로 최소 2명 사망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발생한 6.1의 강진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AP통신, 신화통신, 데일리 뉴스 등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 데일리뉴스는 이날 전날에 발생한 강진으로 여자 아이 1명을 비롯해 최소 2명이 숨지고 최소 16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힌두쿠시주(州) 마을 자름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파키스탄 접경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 깊이는 191.2km 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날 오후 12시7분께 수도 이슬라마바드, 남서부 발로치스탄,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파크툽크, 동부 펀자브 등 여러 지역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다. 현지 TV 방송사 우르드 TV는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사무실과 학교에서 지진으로 놀란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발루치스탄 주정부 관계자는 이날 성명에서 라스벨라에서 한 벽돌집이 무너지면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당국이 이 지역의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서부 노스웨스트프런티어주의 주도 페샤와르에서도 학교에서 지진에 놀란 학생들이 갑자기 뛰어나가는 바람에 학생 4명이 다쳤다. 현지 정부 관계자는 다친 학생 중 중상을 입은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 지진은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도 감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파키스탄과 접경 지역에 있는 바다흐산주에서 건물 벽이 무너져 최소한 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굴 모하마드 베다르 주지사는 성명에서 지진으로 벽에 균열이 생긴 주택이 많아 정부 관계자들이 오지마을인 자름의 자세한 피해상황을 접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름 지역 정부 관계자는 AP통신에 공무원들이 약 52개 마을에 전화가 되지 않아 지진 피해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다.

## 남아공 케이프타운, 100년래 최악의 가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심한 가뭄으로 대형 저수지의 물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사진들이 공개됐다고 CNN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이날 미국 항공 우주국(NASA)에서 인수해 공개한 위성사진들은 케이프타운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디워터스클루프프 댐의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번 주 저수지 물의 양은 지난 주보다 급격하게 줄어 총량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댐은 최대 48만1000메가리터가 넘는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 전체 댐 시스템이 저장한 총량의 53%를 차지한다. NASA의 인공위성 사진들은 이 지역에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초원이고 청색은 저수지이다. 녹색과 청색은 주변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 NASA 인공위성이 만들어 낸 인위적 색상이다. 최근 가뭄으로 특히 케이프타운 인근 초원과 저수지의 면적이 크게 줄었다. 케이프타운의 물 부족 사태가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도시화로 인한 인구 증가, 지구 온난화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현지 시정부는 오는 4월12일 쉼 수원이 말라버리는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도시에 사는 주민 400만명이 수도공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뉴스스

## '납허용기준 10배 초과' 납싯봉 제조업체 적발

납 허용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납싯도구인 납싯봉(납추로 된 일명 봉뿔)을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체 2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허용기준을 초과한 납싯봉을 제조해 판매(납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한 혐의로 A급속 대표 송모(71·여)씨와 B파괴 대표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와 나주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전남지역 납싯점 등 상대로 허용기준 이상의 납이 함유된 납싯봉을 제조·판매해 5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해경은 광주시 북구에 불법 납싯봉 제조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를 거쳐 적발했으며, 나주시 제조공장에서 납싯봉과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다. 또 압수한 납싯봉을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납 허용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납싯봉은 납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납싯줄 끝에 매어 다는 작은 쇠덩이를 말한다. 납시관리 및 육성법은 유해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거나 잔류된 납싯봉 등 납싯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납의 허용기준은 kg당 90mg 이하이다.



입춘 앞둔 나비의 외침.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을 알리는 입춘(立春)을 3일 앞둔 1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잠을 깨 나비들이 화려한 날갯짓으로 봄을 부르고 있다.

## 계엄군 총탄에 숨진 고 김재홍 열사...2월 민주유공자

1980년 광주 5·18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여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김재홍 열사가 2월의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1일 김재홍 열사를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열사는 1961년 11월 9일생으로 5·18 당시 숭실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그는 5월20일 휴교령이 내려지자 친구들과 함께 시위에 합류해 민주주의를 외쳤다. 이어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가 이뤄지자 김 열사는 대항을 하기 위해 인근 파출소로 향하던 중 계엄군에 발각돼 무차별 총격을 받았다. 총격이 멈춘 이후 시민에 의해 발견된 김 열사는 나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았다.

치료 이후에도 심각한 부상 후유증을 겪은 김 열사는 이듬해 3월, 전남대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김 열사는 현재 국립5·18민주묘지 2-63묘역에 잠들어 있다.

최남규 기자

##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탈북자 징역 8개월

정신병원에서 보호관찰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정록 판사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9)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도주기간이 길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형

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단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3시36분께 나주 한 정신병원 주변 아산에서 휴대용 전자 부착장치를 버리고 별도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춘정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진단

영양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사별이유인 전구체	42%p 감소	사별이유인 전구체	18%p 감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연말에는 건강검진이 중단되거나, 미리 미리 건강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